

## 작업치료사의 직업기초능력 우선순위 조사연구

박아름<sup>1</sup> · 손성민<sup>1†</sup>

<sup>1</sup>전주기전대학 작업치료과, 교수  
(2021년 1월 8일 접수: 2021년 2월 24일 수정: 2021년 2월 26일 채택)

### Survey Study about the Priority of Vocational Core Competence for the Occupational Therapist

Ah-Ream Bak<sup>1</sup> · Sung-Min Son<sup>1†</sup>

<sup>1</sup>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Jeonju Kijeon College, Jeonju, Republic of Korea  
(Received January 8, 2021; Revised February 24, 2021; Accepted February 26, 2021)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작업치료사의 직업기초능력 우선순위를 조사하는 데 있다. 연구대상은 작업치료사 138명과 작업치료과 재학생 95명이다. 대상자들에게 직업기초능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요소들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작업치료사와 재학생 두 집단 모두에서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고 나타났으며,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을 중요하다고 나타났고, 자신 또한 보유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하지만, 작업치료과 재학생 집단에서 기술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나타났지만 가장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나타났다. 이에 따라서, 작업치료사로써 실제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국가직무능력표준, 우선순위, 작업치료사,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the occupational therapists's vocational core competency. Study subjects were 138 occupational therapists and 95 students majored occupational therapy and they participated in the survey about the vocational core ability to confirm the factors about the vocational core ability. As the results of these, both occupational therapists and university students majored occupational therapy felt the need for vocational ability and communication skills,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and problem-solving skills were found to be important, and that they also possessed them. However, only in the group of students majored occupational therapy showed that technical skills were important, but they did not possess the most.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curriculum that can collect knowledge and information on various skills necessary for actual vocational performance as the occupational therapist.

**Keyword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Occupational Therapist, Priority, Vocational core competence, Job competency

---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ertreat@naver.com)

## 1. 서론

대학은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고등교육기관으로 교육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인재상의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을 기반으로 한 직업기초능력 평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포함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1][2]. NCS 직업기초능력이란 직업에 상관없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공통적인 능력으로, 10가지의 대분류와 34개의 소분류로 구분되어진다[3][4]. 이러한 영역들은 각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공유되며, 대학과 사회 전반에서 요구되는 직업능력을 효율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5], 이에 따라서, 이미 외국의 다양한 대학들에서는 오래 전부터 직업기초능력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6][7][8].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교육은 직무와 관련된 실제적인 상황에서 학습자를 중심으로 적용되어, 대학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의 향상에 적절한 학습 방법으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9]. 이러한 교육은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 직무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10].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교육은 기대수명의 증가와 고령화, 그리고 만성질환 등의 증가로 보건의료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보건의료학과에서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있으며, 이에, 각 대학에서는 보건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11].

보건의료전문가들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자와 보호자, 간병인과의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응급상황과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어 진다고 보고되고 있다[12]. 산업체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직업기초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에, 보건의료전문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치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 우선순위분석[13], 안경사의 직업기초능력에 관한 연구[14], 언어치료사와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중

요도 인식 비교연구[15], 치과위생사의 전문 직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기초능력 요소에 관한 연구[16]등으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직무와 관련된 직업기초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보고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작업치료사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연구는 현재 전무한 실정이며, 작업치료사와 작업치료학과 재학생들에 대한 직업기초능력의 중요도와 소유도에 관한 연구도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와 작업치료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현재 대학과 사회에서 요구되는 직업기초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의 설정에 기초자료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총 233명이며, 전북, 충청지역의 작업치료사 138명과 작업치료학과 재학생 95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대상의 선정기준은 작업치료사의 경우 작업치료사 면허를 소지하며, 작업치료사로써 근무 중인 자로 하였다. 작업치료학과 재학생의 경우에는 현재 작업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작업치료사와 작업치료학과 재학생 모두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로 하였다. 연구 참여에 앞서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는 서면으로 제공 받았다.

본 연구의 참여는 온라인 설문지의 형태로 참여되었으며, 257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지만,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하지 않고, 설문에 대한 응답 과정에서 중복으로 기재하거나 미 기재항목이 있는 총 24명의 응답은 응답내용의 부적절함으로 본 연구의 참여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총 233부의 설문이 회수되었다.

본 연구기간은 2019년 05월 22일부터 06월 22일까지이며, 총 4주간 진행되었다.

### 2.2 직업치료능력 조사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조사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근거한 10개의 대분류와 34개의 소분류를 근거로 구성되었다. 이에, 각 항목별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과 소유한 항목을 각각 3 항목씩 중복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부적으로, 작업치료사에 대한 설문항목은 총 19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일반적 특성은 6 항목, 직업기초능력은 13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작업치료학과 재학생에 대한 설문항목은 총 18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일반적 특성은 5문항, 직업기초능력은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별 설문은 온라인 설문의 형태로 실시되었으며, 설문은 실제 직업기초능력에 관련한 강의경력이 있고, 본 연구의 연구자인 작업치료과 교수 2인에 의해 실시되었다.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대상자들에게 설문항목과 목적, 내용에 대한 구두설명과 안내문을 통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였으며, 이를 이해하도록 한 후 진행하였다.

### 2.3. 분석방법

분석방법은 SPSS 18.0 ver.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업기초능력 교육의

필요성, 중요도 및 소유도에 대한 분석은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활용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3.1.1. 작업치료사

작업치료사 138명에 대한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42명(30.4%), 여성이 69명(69.6%)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26세에서 30세까지 37명(61.0%)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31세에서 35세까지 37명(26.8%), 25세 이하 27명(19.6%), 41세 이상은 1명(0.7%) 순으로 나타났으며, 41세 이상에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치료경력은 6년에서 10년이 44명(31.9%)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3년 미만 43명(31.2%), 3년에서

Table 1. Characteristics of occupational therapist (n=138)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N(%)
Sex	Male	42(30.4)
	Female	96(69.6)
Age (yrs)	25 below	27(19.6)
	26-30	61(44.2)
	31-35	37(26.8)
	36-40	12(8.7)
	41 above	1(0.7)
Career (yrs)	3 above	43(31.2)
	3-5	39(28.3)
	6-10	44(31.9)
	11-15	10(7.2)
Work organization	16 above	2(1.4)
	University hospital	14(10.1)
	Rehabilitation and long-term care hospital	104(75.4)
	Public health center	2(1.4)
Therapy part	The others	18(13.0)
	Adults	105(76.1)
	Children	30(21.7)
Graduations	The others	3(2.2)
	3 year bachelor's degree	41(29.7)
	4 year bachelor's degree	81(58.7)
	Master's degree	16(11.6)

5년 39명(28.3%), 11년에서 15년 10명(7.2%), 16년 이상 2명(1.4%) 순으로 나타났고 16년 이상에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근무기관은 재활, 요양병원이 104명(75.4%)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기타 근무처 18명(13.0%), 대학병원 14명(10.1%), 보건소 2명(1.4%) 순으로 나타났고, 보건소가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작업치료사로서 치료를 담당하는 대상은 성인이 105명(76.1%)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소아는 30명(21.7%), 기타 3명(2.2%)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에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작업치료사의 최종학력은 4년제 졸업이 81명(58.7%)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3년제 졸업 41명(29.7%), 석사졸업 이상 16명(11.6%) 순으로 나타났고, 석사졸업 이상이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 3.1.2. 작업치료학과 재학생

작업치료학과 재학생 95명에 대한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성별의 경우 남성 26명(27.4%), 여성 69명(72.6%)으로 나타났다. 학년의 경우 1학년이 37명(38.9%)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3학년 34명(35.8%),

2학년 21명(22.1%), 4학년 3명(3.2%) 순으로 나타났고, 4학년이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전공 만족도의 경우 만족이 83명(87.4%), 불만족이 12명(12.6%)으로 나타났고, 만족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실습에 대한 경험유무는 실습경험이 없는 경우 56명(58.9%), 실습경험이 있는 경우 39명(41.1%)으로 나타났고, 실습 경험이 없는 경우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재학생들의 희망취업지의 경우 대학병원이 37명(38.9%)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보건소 25명(26.3%), 재활, 요양병원 19명(20.0%), 기타 11명(11.6%), 요양원 2명(2.1%), 복지관 1명(1.1%) 순으로 나타났고, 복지관에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 3.2. 직업기초능력 교육의 필요성

직업기초능력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작업치료사의 경우 필요함이 133명(96.4%), 필요하지 않음이 5명(3.6%)으로 나타났고, 작업치료학과 재학생의 경우 필요함이 87명(91.6%), 필요하지 않음이 8명(8.4%)으로 나타났다. 작업치료사와 작업치료학과 재학생 모두 필요함이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작업치료사가 작업치료학과 재학생보다 더 많은 분포를 보였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students majored occupational therapy (n=95)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N(%)
Sex	Male	26(27.4)
	Female	69(72.6)
Grade	1st	37(38.9)
	2nd	21(22.1)
	3rd	34(35.8)
	4th	3(3.2)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83(87.4)
	Dissatisfaction	12(12.6)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Experience	39(41.1)
	None	56(58.9)
Employment organization hope	University hospital	37(38.9)
	Rehabilitation and long-term care hospital	19(20.0)
	Public health center	25(26.3)
	Community welfare center	1(1.1)
	Nursing home	2(2.1)
	The others	11(11.6)

Table 3. The necessity of vocational core competence education

Characteristics	Necessity	N(%)
Occupational therapist	Need	133(96.4)
	Not need	5(3.6)
students majored occupational therapy	Need	87(91.6)
	Not need	8(8.4)

Table 4. The Importance and possession level of occupational therapist

Rank	Occupational therapist		Possession	N(%)
	Importance	N(%)		
1	Communication skills	106(25.6)	Communication skills	110(26.6)
2	Interpersonal skills	85(20.5)	Interpersonal skills	80(19.3)
3	Problem solving skills	71(17.1)	Problem solving skills	65(15.7)
4	Vocational ethics	43(10.4)	Organizational understanding ability	44(10.6)
5	Self development ability	37(8.9)	Vocational ethics	35(8.5)
6	Technical skills	29(7.0)	Self development ability	25(6.0)
7	Organizational understanding ability	25(6.0)	Technical skills	22(5.3)
8	Information ability	16(3.9)	Information ability	18(4.3)
9	Resource management ability	2(0.5)	Resource management ability	12(2.9)
10	Math skills	0(0.0)	Math skills	3(0.7)

### 3.3.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중요도 및 소유도

#### 3.3.1. 작업치료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의한 10가지 직업기초능력 중 작업치료사에게 중요한 항목과 자신의 소유한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응답결과 작업치료사에게 중요한 항목으로 응답의 분포가 가장 높은 1순위는 의사소통능력 106명(25.6%)으로 나타났고, 2순위 대인관계능력 85명(20.5%), 3순위 문제해결능력 71명(17.1%) 순으로 나타났다. 4순위는 직업윤리능력 43명(26.6%), 5순위 자기개발능력 37명(8.9%), 6순위 기술능력 29명(7.0%), 7순위 조직이해능력 25명(6.0%)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순위로, 8순위 정보능력 16명(3.9%), 9순위 자원관리능력 2명(0.5%), 10순위 0명(0.0%) 순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 응답의 분포가 가장 높은 1순위는 의사소통 능력 11명(26.6%)으로 나타났고, 2순위 대인관계능력 80명(19.3%), 3순위 문제해결능력 65명(15.7%) 순으로 나타났다. 4순위는 조직이해능력 44명

(10.6%), 5순위 직업윤리능력 35명(8.5%), 6순위 자기개발능력 25명(6.0%), 7순위 기술능력 22명(5.3%)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순위로, 8순위 정보능력 18명(4.3%), 9순위 자원관리 능력 12명(2.9%), 10순위 수리능력 3명(0.7%) 순으로 나타났다. 작업치료사에게 중요한 항목과 소유하고 있는 항목은 1-3순위가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으며, 4순위부터 7순위까지는 항목은 동일하였지만 항목에 대한 순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 3.3.2. 작업치료학과 재학생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의한 10가지 직업기초능력 중 작업치료학과 재학생에게 중요한 항목과 자신의 소유한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응답결과 작업치료사에게 중요한 항목으로 응답의 분포가 가장 높은 1순위는 의사소통능력 79명(27.7%)으로 나타났고, 2순위 대인관계능력 61명(21.4%), 3순위 문제해결능력 58명(20.4%) 순으로 나타났다. 4순위 기술능력 25명(8.8%), 5순위 직업윤리능력 23명(8.1%), 6순위 정보능력 15명(5.3%), 7순위 자기개발능력

Table 5. The Importance and possession level of occupational therapy department students

Rank	Occupational therapist			
	Importance	N(%)	Possession	N(%)
1	Communication skills	79(27.7)	Communication skills	68(23.9)
2	Interpersonal skills	61(21.4)	Interpersonal relationship	67(23.5)
3	Problem solving skills	58(20.4)	Problem solving ability	37(13.0)
4	Technical skills	25(8.8)	Vocational ethics	25(8.8)
5	Vocational ethics	23(8.1)	Self development ability	25(8.8)
6	Information ability	15(5.3)	Organizational understanding ability	21(7.4)
7	Self development ability	13(4.6)	Information ability	14(4.9)
8	Organizational understanding ability	8(2.8)	Resource management ability	13(4.6)
9	Resource management ability	3(1.1)	Math skill	10(3.5)
10	Math skill	0(0.0)	Description ability	5(1.8)

13명(4.6%)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순위로, 8 순위 조직이해능력 8명(2.8%), 9순위 자원관리능력 3명(1.1%), 10순위 수리능력 0명(0.0%) 순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 응답의 분포가 가장 높은 1순위는 의사소통능력 68명(23.9%)으로 나타났고, 2순위 대인관계능력 67명(23.5%), 3순위 문제해결능력 37명(13%) 순위로 나타났다. 4순위 직업윤리능력 25명(8.8%), 5순위 자기개발능력 25명(8.8%), 6순위 조직이해능력 21명(7.4%), 7순위 정보능력 14명(4.9%)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순위로, 8순위 자원관리능력 13명(4.6%), 9순위 수리능력 10명(3.5%), 10순위 기술능력 5명(1.8%) 순으로 나타났다.

작업치료사에게 중요한 항목과 소유하고 있는 항목은 1-3순위가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으며, 4 순위부터 7순위까지 항목은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4순위부터 10순위까지 항목과 순위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기술영역은 작업치료사에게 중요한 항목 4순위로 나타났지만 소유하고 있는 항목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기술능력은 소유하고 있는 항목 10순위로 나타났지만 작업치료사에게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 4. 고 찰

NCS 직업기초능력이란 직무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10가지의 대분류와 34개의 소분류로 구분된다[3]. 이를 활용

하여 본 연구에서는 작업치료사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현재 임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업치료사 138명과 작업치료학과 재학생 95명을 대상으로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우선순위로 중요도와 소유도를 조사하였다.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한 가지의 직업만을 가지고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 생애를 걸쳐 자신의 직업기초능력을 관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17]. 이에 대학에서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재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개발과 경력개발을 단순히 취업준비를 위한 부분만이 아닌 전 생애에 걸쳐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18].

작업치료사는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 수행의 어려움이 있는 환자에게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로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요구도에 발맞추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19]. 또한, 넓은 업무범위와 대상으로 인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동료 작업치료사 및 의료인과 의료기사, 사회복지사, 환자의 가족 등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0].

작업치료사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분석결과, 작업치료사와 작업치료학과 재학생 모두 직업기초능력으로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문제해결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NCS 직업기초능력 중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이 중요하다고 보고한 다양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며, 이를 통해 본 연구결과가 지지된다[5][21][22]. Lee[12]는 연구

에서 재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작업치료사는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이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보고하였으며, Kim et al.[23]의 연구에서도 의사소통능력이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의사소통능력이 뛰어나수록 다른 항목의 능력도 우수하게 된다고 하였다. Shin & Park[24]의 연구에서도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은 실제로 작업치료학과 재학생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며, 취업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는 수리능력, 조직이해능력, 기술능력의 중요성을 낮게 인식한다고 보고하였다[5][25].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수리능력, 조직이해능력, 기술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낮다는 부분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앞서 제시한 Lee[12]의 연구에 근거하여, 작업치료사의 직무 특성상 환자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제공하는 기술적인 능력이 요구되며,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팀워크를 이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중요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작업치료학과 재학생의 교육과정의 적용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중요도와 소유도 분석결과를 토대로, 작업치료사와 작업치료학과 재학생의 분석결과를 비교해보면, 중요도와 소유도의 1-3순위의 분석결과는 동일하였다. 하지만, 중요도의 경우 항목은 동일하였지만, 순위가 다르게 나타났고, 수요도의 경우 항목과 순위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기술능력의 경우 작업치료학과 재학생들의 중요도에서 작업치료사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소유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기술능력은 업무에 필요한 기술들을 이해하고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기술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실제 미취업자인 작업치료학과 재학생들은 취업중인 작업치료사들에 비해서 실제 직무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서, 실제 기술능력과 관련하여 산업체에서 요구되는 기술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현재 임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업치료사와 작업치료학과 재학생들의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에 관한 우선순위를 조사하여, 작업치

료사에게 요구되는 직업기초능력들을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임상적 의의를 지니며, 작업치료사에게 요구되는 직업기초능력을 파악하고, 작업치료학과 재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상자의 모집범위가 전북지역과 충청지역에만 국한되어있어서 작업치료사와 작업치료학과 재학생들의 분석결과로 일반화하는데는 제한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대상의 모집범위를 확대하여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5. 결론

본 연구는 전북, 충청지역 작업치료사 138명과 작업치료학과 재학생 95명을 대상으로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작업치료사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중요도와 소유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모두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며,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이 중요하다고 나타났다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으로 나타났다. 반면, 작업치료과 재학생의 경우, 중요도와 소유도에 대한 항목과 순위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기술능력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실제,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1. P. G. Altbach, J. Balan, "World class worldwide: Transforming research universities in Asia and Latin America", Baltimore: JHU Press, (2007).
2. S. T. Kim, "A study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or key competencies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Vol.21, No.2, pp. 599-628, (2009).
3. Y. K. Yang, W. H. Chung, "Research in the direction of the reform of the liberal arts based on the NCS professional basic

- abilit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8, No.4, pp. 45-68, (2014).
4. K. P. Hong, “The development of the problem based learning program for enhancement of professional basic ability in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5, No.7, pp. 585-619, (2015).
  5. A. J. Hong, Y. S. Jo, C. K. Park, “Needs analysis about NCS vocational competency in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5, No.7, pp. 227-246, (2015).
  6. W. Robley, S. Whittle, D. Murdoch Eaton, “Mapping generic skills curricula: A recommended methodology”, *Journal of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Vol.29, No.3, pp. 221-231, (2005).
  7. V. Tariq, A. C. Cochrane, “Reflections on key skills: Implementing change in a traditional university”, *Journal of Education Policy*, Vol.18, No.5, pp. 481-498, (2003).
  8. P. Washer, “Revisiting key skills: A practical framework for higher education”, *Quality in Higher Education*, Vol.13, No.1, pp. 57-67, (2007).
  9. H. J. Joo, H. W. Kim, “PBL program development and application for improving NCS vocational basic abilities: Focusing on the case of S health university”, *The Korean Society of Culture and Convergence*, Vol.38, No.3, pp. 327-358, (2016).
  10. M. S. Kim, “Germany’s competency-based curriculum reforms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n curriculum reform”,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36, No.4, pp.5-28, (2009).
  11. Y. D. Lee, J. K. Kim, C. H. Park, “Public health related department graduates’ occupational key competence required by hospital work staff members”, *Journal of Korean Health & Fundamental Medical Science*, Vol.6, No.3, pp. 147-152, (2013).
  12. J. M. Lee,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 and communication skills of occupational therapists on their work stres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gnitive Rehabilitation*, Vol.2, No.1, pp. 81-97, (2013).
  13. N. H. Hong, “Priority analysis of NCS based vocational core competency of dental hygienists in Gwangju”,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16, No.3, pp. 337-346, (2016).
  14. O. J. Lee, S. H. Jung, “Study on vocational core competency of optometrists”, *Journal of Korean Ophthalmic Optics Society*, Vol.22, No.4, pp. 311-321, (2017).
  15. H. K. Choi, H. H. Jeon, D. W. Lim, S. G. Lee, K. E. Park, S. B. Lee, J. E. Yoo, H. S. Jeon, “Comparison of the recognition of importance of the vocational key competencies between the speech-language pathologists and the university students”, *Korean Speech-Language & Hearing Association*, pp. 445-448, (2016).
  16. Y. S. Kyeong, “Vocational competency constituents affecting the professionalism of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10, pp. 6558-6566, (2015).
  17. E. J. Ha,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for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Education, (2016).
  18. H. J. Sung, S. I. Na,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career development supports of senior students in universitie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44, No.1, pp. 83-108, (2012).
  19. H. S. Lee, “A survey of the core Job of



- occupational therapists and their different Job tasks depending on the therapist's experience in years and different treatment areas", *The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Vol.19, No.1, pp. 1-14, (2011).
20. M. Y. Jung, Y. J. Cha, "An analysis on the status and supply-demand of occupational therapist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Vol.17, No.4, pp. 113-126, (2009).
  21. M. S. Kim, "Program development and application for improving NCS vocational basic abilitie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25, No.2, pp. 477-503, (2019).
  22. J. W. Lee, J. Y. Kim,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on university students' recognition of NCS vocational competency",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35, No.5, pp. 75-96, (2016).
  23. S. N. Kim, Y. S. Kwon, J. S. Shin, "A study for promoting key competencies of college students", *Korea Corporation Management Association*, Vol.19, No.2, pp. 57-77, (2012).
  24. S. W. Shin, S. N. Park, "The effects of self-efficacy, basic Job competencies, and Job preferences on employment probability of college graduate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34, No.6, pp. 93-113, (2015).
  25. W. J. Lee, J. Y. Han, "An importance analysis of basic vocational competencies for developing and implementing secretarial training programs based on NCS", *The Women's Studies*, Vol.89, No.2, pp. 119-154, (2015).